

제5차 확대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4. 1. 23.(화) 19:00~20:30
- 장소 : 문창회관 3층 대회의실

**제5차 부산대학교 확대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2024. 1. 23.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총괄국**

목 차

I. 회의 개요

1. 제5차 확대중앙운영위원회 회의 개요

II. 보고 안건

1. 제5차 확대중앙운영위원회 성원 보고
2. 총학생회 보고
3. 단과대학 및 동아리연합회 보고

III. 논의 안건

1. 2024학년도 확대중앙운영위원회 간사 지명에 관한 건
2. 2024학년도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통합추진 소위원회 학생 위원 추천에 관한 건
3. 202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집행위원 추천에 관한 건
4. 2024년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관련 변경 사항 안내 및 대응 방안에 관한 건

IV. 기타 안건

1. 다음 확대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

V. 건의 안건

1. 단과대학 및 동아리연합회에서 건의할 사항

I. 회의 개요

1. 제5차 확대중앙운영위원회 회의 개요

가. 일 시 : 2024. 1. 23.(화), 19:00~20:30 [약 1시간 30분]

나. 장 소 : 부산캠퍼스 문창회관 3층 대회의실

다. 상 정 안 건 : 총 7건

□ 보고안 3건, 논의안 4건

라. 재 적 위 원 : 38명

□ 재적위원 구성 - 의장(총학생회장), 부의장(부총학생회장), 운영위원(단과대학 회장단 및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마. 개 의 요 건 : 10단위 이상 참석

바. 의 결 요 건 :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사. 참 석 위 원 : '[붙임 1] 제5차 확대중앙운영위원회 정례회의 참석자 명단' 참조

아. 기록물 작성자 : 총학생회 사무총괄국장(준) 전영욱

자. 기록물 책임자 : 총학생회장 이창준

II. 보고 안건

1. 제5차 확대중앙운영위원회 성원 보고

의장 : 개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제5차 확대중앙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를 개최하겠음. 본래 이번 회차 정례 회의부터 간사께서 성원 보고를 한 후 보고 안건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아직 간사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다음 회차 정례 회의부터 간사께서 성원 보고하실 예정임.

2. 총학생회 보고

- '24. 1. 17.(수), 제9차 부산대학교 대학평의회 참석
- '24. 1. 17.(수) ~ 1. 18.(목), 공식 응원단 관련 서울, 대전 출장
- '24. 1. 19.(금), 부산 지역 국립대학 학생회 발전 네트워크 구축 출석 인증서 배부
- '24. 1. 22.(월), 대학본부 기획평가과 미팅 진행
- '24. 1. 22.(월), 제7차 예산편성조정실무위원회 참석
- '24. 1. 22.(월),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PNU Customer Satisfaction Index) 개선을 위한 학생 표본(Focus Group Interview) 구성
- '24. 1. 23.(화), 부산대학교 학생회 역량 강화 동계 워크숍 현장 답사
- '24. 1. 23.(화),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통합추진 소위원회 제4차 회의 참석
- '24. 1. 24.(수) ~ 1. 25.(목), 교육수요자 만족도 학생 표본 조사(PCSI-FGI) 예정

의장 : 1월 17일 제9차 부산대학교 대학평의회에 부총학생회장, 사회과학대학 부학생회장 참석하였음. 관련하여 의논한 내용은 마지막에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음.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부산대학교 공식 응원단 관련 서울, 대전 출장을 총학생회장, 대외협력국장(준), 학생과 주무관님 총 세 명이 함께 다녀옴. 출장 장소는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대, 카이스트 총 네 군데를 답사하는 방식으로 다녀왔으며 한양대와 이화여대는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출장을 가게 된 계기는 올해 총학생회 공약 사업인 부산대학교 공식 응원단 창단을 착수하기 전 타 대학의 우수 사례를 조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응원단실 방문, 응원단과 구두 논의 등 갖가지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임. 1월 22일 대학본부 기획평가과 미팅하였으며, 기획평가과 미팅에서는 글로컬30 사업이 금년도부터 추진되기에 해당 사업의 기반을 다진 주무관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교육정책국장(준)이 대학본부에 방문하였음. 같은 날 제7차 예산편성조정실무위원회(이하 예편위)에 부총학생회장께서 참석하셨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 심의·편성 권한을 예편위에 위임하여 예편위에서 각 조를 편성하여 예산을 심의·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림. 1월 22일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개선을 위한 학생 표본 구성이 완료되었음. 1월 23일 부산대학교 학생회 역량 강화 동계 워크숍 현장 답사를 금일 총학생회 전략조정실원이 다녀옴. 그리고 같은 날 제4차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통합추진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장과 전략조정실장(준)이 부산교육대학교에 방문하고 옴.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날 회의에는 우리 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배석하였음.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교육 수요자 만족도 학생 표본 조사(PCSI-FGI)를 진행할 예정임. 이것과 관련하여 설명해 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9차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당일 총학생회장은 출장 일정이 중복되어 참석하지 못하였고 부총학생회장과 사회과학대학 부학생회장께서 참석하셨는데, 이날 회의에 재수강 학점을 A0로 완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안건이 올라왔었음.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교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학칙 개정이 되는 절차인데, 본인을 포함한 처장급 교무위원들이 워크숍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였고, 대학평의원회 의장께서 해당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무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 결과 해당 안건은 보류됨. 관련해서 재수강 학점 완화를 제외하고도 2024학년도 1학기 시작 전 의결해야 하는 중요 안건이 꽤 많았기에 서면 심의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의결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2024학년도 1학기에 재수강 학점이 A0로 완화될 것으로 사료됨. 만약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후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음. 그리고 금일 부산대학교 학생회 역량 강화 동계 워크숍 현장 답사를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일 18시까지 워크숍 참석 명단을 단위별 대표자께서 수합하셔서 총학생회 측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램. 같은 날 제4차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통합추진 소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선 주된 논의 내용이 양 대학 동아리연합회 운영 방안 공유에 관한 건이었음. 먼저 어떤 방식으로 각 대학 동아리연합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뒤 다음 안건으로 문화 분야에서의 통합을 취지로 양 대학 축제에 각 대학의 동아리가 축하 공연을 하는 것을 논의하였고 양 대학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음. 그리고 다음 안건으로 양 대학 동아리연합회칙 개정을 논의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양 대학 동아리연합회 회원 모집 대상을 확대하여 양 대학 학생이 서로 자교가 아닌 타교의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음.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고려해 보았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예를 들어 활동 인증서를 발급할 때 어떤 기관에서 발급할 것인지 등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있었음. 마지막 안건으로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공통 유튜브 채널 개설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올해 총학생회 공약 사업 중 'Be the One' 캠페인 시행이라는 공약이 있는데, 해당 공약과 이것과 맞물려서 글로컬30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학우를 위하여 조금이나마 학우 여러분께 친근한 방식으로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자 함. 어떤 주제로 진행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음. 총학생회 보고에 대해 질의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램.

사회(정) : 부산대학교 학생회 역량 강화 동계 워크숍 참여 인원이 왜 5명으로 제한되었는지?

의장 :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워크숍 목적과 가장 부합한 인원을 대상으로 제한하게 된 점 양해를 구함.

경영(부) : 경영대학은 단일 학과라 단운위가 반장 제도로 운영되고 반장은 1년 임기이기에 만약 반장이 참석하면 3월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목적성을 상실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장 : 관련하여 공식적 기준을 말씀드리면 2024학년도 현직 학운위 위원, 현직 단운위 위원이며,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현직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대상임.

예술(정) : 우리 단과대학 워크숍 참가자 TO는 7명인데 인원을 모두 충당하지 못할 경우 TO의 남은 인원을 다른 곳에서 추가 모집을 진행할 것인지?

의장 : 현재 단위별 대표자를 우선하여 모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여유 TO가 발생한다면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위) TO가 굉장히 적은 관계로 당일 행사 스태프로 활동하기 위한 중집위 구성원을 모시고 갈 예정임.

생자(정) :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 동아리연합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정되는지?

의장 :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구성원이라면 예산 편성이라든지 워크숍 목적과 부합하다고 생각하여 워크숍 참가 자격을 인정하겠음.

치의학(정) : 우리 단과대학의 경우 단일과고 반도 나누어져 있지 않는데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과 2학년 총대, 부총대 그리고 3학년 총대, 부총대가 끝인 건지 아니면 예과 학생회 구성원도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 포함되는지?

의장 :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는 집행부가 집행하는 데 있어 의결하는 기구를 의미하므로 학운위와 같이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하는 이러한 단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여 주시기를 바람.

간호(정) : 간호대학도 단일학과인 관계로 학년 대표가 총 3명이 있는데 총대 같은 경우도 한 학기마다 바뀌어 워크숍 교육 내용을 들어도 단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보다 더욱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재정사무국장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떠한지?

의장 : 총무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까지 포함하고 싶으나 관련된 내용을 회장님과 부회장님께서 숙지 하셔서 재정을 담당하는 집행위원께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함. 추가 질문이 있는지? 추가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보고 안건으로 넘어가는데, 단과대학 및 동아리연합회 보고는 일전에 수합 받은 내용으로 같음하겠음.

3. 단과대학 및 동아리연합회 보고(가나다 순)

간호대학 학생회	- 간호대학 보고 안건 없음
경영대학 학생회	- 1/17(수), 경영대학 신입생 맞이 TF 구성 완료 - 1/17(수), 경영대학 새내기 배움터 장소 선정 및 계약 완료 - 1/19(금), 경영대학 수시 합격생 간담회 진행 - 1/19(금) ~ 1/20(토), 경영대학 과잠 수요 조사 진행 - 1/22(월), 경영대학 신입생 맞이 TF 팀장 회의 진행
경제통상대학 학생회	- 1/19(금), 경제통상대학 학생회 국별 사업 계획서 작성 완료 - 1/21(일) ~ 1/24(수), 경제통상대학 새내기 배움터 참여자 1차 모집
공과대학 학생회	- 1/28(일), 공과대학 학생회 카카오휴크 구축 진행 - 1/29(월) ~ 1/30(화), 공과대학 감사 시행 기간 - 2/19(월) ~ 2/20(화), 공과대학 학생회 워크숍 진행 예정 - 3/21(목), 공과대학 출범식 진행 예정
나노과학기술대학 학생회	- 1/23(화), 나노과학기술대학 새내기 배움터 답사 완료 - 2/13(화), 나노과학기술대학 오리엔테이션 실시 예정
동아리연합회	- 동아리연합회 보고 안건 없음
사범대학 학생회	- 사범대학 보고 안건 없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 1/19(금),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및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카카오휴크 설치 완료 - 1/19(금), 사회과학대학 새내기 배움터 답사 완료 - 1/22(월), 사회과학대학 출범식 기획(안)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심의 완료 - 1/22(월),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 공고 및 참관인 모집 공고 - 1/24(수) ~ 2/15(목), 사회과학대학 감사 시행 기간 - 2/1(목), 새내기 가이드북 인스타그램 게시 예정 - 2/21(수),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LT 예정 - 2/28(수), 사회과학대학 새내기 배움터 예정 - 3/28(목), 사회과학대학 출범식 시월광장 넉넉한터 진행 예정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생회	- 1/24(수), 제2차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생회 전체회의 진행 예정 - 1/25(목), 제2차 생명자원과학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예정 - 1/30(화), 생명자원과학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진행 예정
생활과학대학 학생회	- 1/17(수), 생활과학대학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 진행 중 - 1/22(월), 생활과학대학 새내기 배움터 업체 선정 완료 - 1/22(월), 생활과학대학 학생회 카카오휴크 구축 진행 중 - 1/23(화), 생활과학대학 감사 시행 공고 - 1/30(화), 생활과학대학 학과별 감사 자료 취합 마감 예정
약학대학 학생회	- 1/18(목), 약학대학 편입생 면접 진행 - 1/19(금), 약사 국가고시 행사 진행 - 1/20(토) ~ 1/21(일), 대한약학대학 학생회 오리엔테이션 참석 - 1/21(일), 부산광역시 약사회 합창단 공연 보조 진행 - 1/22(월), 창원특례시 약사회 간담회 참석
예술대학 학생회	- 1/18(목), 예술대학 제3차 새내기 배움터 TF 회의 진행 - 1/22(월), 예술대학 학생회실 공사 시작 - 1/22(월) ~ 2/3(일), 예술대학 감사 시행 기간

인문대학 학생회	- 1/26(금), 효원 인문DAY 행사 진행 - 2/20(화) ~ 2/21(수), 인문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LT 및 학생회계 관리법 교육 예정 - 2/27(화) ~ 2/28(수), 인문대학 새내기 배움터 예정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 1/26(금), 자연과학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워크숍 진행 예정
정보의생명공학대학 학생회	- 정보의생명공학대학 보고 안건 없음
의과대학 학생회	- 의과대학 보고 안건 없음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사과정 학생회	-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사과정 보고 안건 없음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사과정 학생회	-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사과정 보고 안건 없음

의장 : 논의 안건에 들어가기 전 한 가지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이제 각 단과대학에서 새내기 배움터(이하 새터)를 준비하느라 분주할 텐데 다음 주쯤에 단체 숙박 및 여행자의 대표로서 안전 수칙과 관련하여 금정구청에서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교내 건물 안에 진입해 학우를 대상으로 방문 판매를 한 사실이 있었기에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련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가급적 새터를 진행하는 단과대학에선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새터 날짜를 부총학생회장께 전달해 드리면 총학생회 차원에서 해당 일자에 24시간 당직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논의 안건

1. 2024학년도 확대중앙운영위원회 간사 지명에 관한 건

의장 : 첫 번째 논의 안건은 2024학년도 확운위 간사 지명에 관한 건임. 이 부분은 회의 초반에 설명해 드렸던 것과 같이 보고 안건 중 성원 보고 차례 때 간사께서 입구에 출석 명단을 배치할 것이고, 해당 서류에 서명된 것을 기준으로 성원 보고를 할 계획임. 또 간사께서 해당 위원회의 사무 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모두 총괄하고 위원분들의 의전까지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함. 따라서 단지 서기라는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서기의 업무를 병행하면서 간사 역할까지 수행하여 확운위라는 의결 기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램. 질의가 없으므로 제5차 확운위 1번 안건 2024학년도 확운위 간사 지명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음. 2024학년도 확운위 간사로 총학생회 사무총괄국장(준) 전영욱을 지명하는 것에 동의하는 위원께서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여 주시기를 바램.

“ 의결 1. 2024학년도 확대중앙운영위원회 간사 지명에 관한 건: 재석 위원 25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

2. 2024학년도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통합추진소위원회 학생 위원 추천에 관한 건

의장 : 다음 안건은 2024학년도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통합추진소위원회(이하 통추위) 학생 위원 추천에 관한 건임. 해당 위원회의 학생 위원 추천권자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이며,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추위 위원으로는 학생처장, 학생지원팀장, 학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현재 학생 위원 3명 중 2명은 본인과 전략조정실장(준)이 임명되어 있는데, 이번 '2024년 부산 지역 국립대학 학생회 발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기점으로 학생 위원 3명 중 1명이었던 제55대 김요섭 총학생회장께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학생 위원을 추천하여야 함. 추천권자인 본인이 여러 인물을 고려했을 때 먼저 부총학생회장을 통추위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본인과 같은 단과대학 소속이므로 다양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부족할 것으로 생각했고, 반대로 전략조정실장을 통추위 위원으로 임명한 이유는 성별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점과 다양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원으로 추천했었음. 이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제55대 김요섭 총학생회장께서 마침 사범대학이었고, 아무래도 글로컬30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통추위인 관계로 현 사범대학 학생회장을 추천하고자 함.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해당 회의에 참석을 하고 싶다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 편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바램.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확운위 2번 안건 2024학년도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통추위 학생 위원 추천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음. 2024학년도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통추위 학생 위원으로 사범대학 학생회장 배어진솔을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는 위원께서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여 주시기를 바램.

“ 의결 2. 2024학년도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통합추진소위원회 학생 위원 추천에 관한 건: 재석 위원 25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

3. 202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집행위원 추천에 관한 건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6조(설치 및 구성) ① 총학생회에는 이 세칙에 정한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독립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2.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3.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4. 중앙운영위원회가 중앙집행위원 중에서 추천한 선거집행위원 2인

의장 : 다음 안건은 202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집행위원 추천에 관한 건임. 이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6조제2항에 근거하여 중앙운영위원회가 중앙집행위원 중에서 선거집행위원 2인을 추천하여야 함. 그런데 해당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확대중앙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운영위원회가 중앙집행위원 중에서 추천한~'이라는 명시적 조건이 있으므로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께서만 의결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램. 선거집행위원은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 업무와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함. 일단 본인은 202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집행위원으로 총학생회 이현주 전략조정실장(준)과 전영욱 사무총괄국장(준)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함.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램. 질의가 없으므로 제5차 확운위 3번 안건 202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집행위원 추천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음. 202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집행위원으로 총학생회 전략조정실장(준) 이현주와 사무총괄국장(준) 전영욱을 지명하는 것에 동의하는 위원께서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여 주시기를 바램.

“ 의결 3. 202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집행위원 추천에 관한 건: 재석 위원 16명 중 16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

4. 2024년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관련 변경 사항 안내 및 대응 방안에 관한 건

의장 : 다음 안건은 2024년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관련 변경 사항 안내 및 대응 방안에 관한 건임. 지난 확운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인 명부를 등록한 학부 재학생과 일반 대학원생이 총장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테고, 이와 관련하여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에서 의결도 하였음. 그런데 위탁선거관리법과 헌법을 근거로 선거인 명부를 등록하지 않은 학생의 투표권 내지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와 관련하여 총추위 위원 몇 분께서 의견을 개진하여 법률 자문을 거쳤음. 또 제21대 총장 선거에선 총학생회 대의원 100명 내외가 선거인단을 꾸려 투표했었는데 이번 제22대 총장 선거에선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를 지향하기에 상황상 일단 수용하되 전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여쭙보았음. 확인하셨다시피 금일 아침에 총장 선거 학생 선거인단 추가 모집 게시글과 총장 선거에 관한 질문 카드뉴스 하나가 게시되었을 텐데 일단 학생 선거인단을 최대한 추가 모집을 받아보기로 했고, 일전에 진행한 학생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하지 않은 학우에 대해서는 선거일 당일에 부산대학교 경암체육관에 설치될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기로 결정됨. 물론 위치가 상당히 아쉽지만, 선거의

특성상 야외에서 선거를 진행할 수 없고 넓은 실내 공간이 필요한데 부산캠퍼스 내 건물 중 가장 적합한 공간이 경암체육관밖에 없어 “알겠다”라는 답변만 내놓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금일 아침 학생 선거인단 추가 모집 전 등록된 선거인단 수가 3,704명이었음. 그런데 앞서 언급한 부산대학교 학부 재학생 및 일반대학원생 전체로 대상을 넓히면 그 수가 약 23,000명이 됨.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투표를 했을 때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10%인데, 모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 표가 가지는 비율이 6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됨. 여기서 생각해 보았을 때 학생 반영 비율은 지난 제21대 총장 선거에 비해 약 2배에서 2.5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한 표의 가치가 6분의 1이 줄어드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함. 그럼에도 본인이 항상 선거 때 사고했던 바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아닌가”라는 것이었기에 여러 가지 생각을 거치던 중 타 직능단체 구성원이 “과연 교원도 학생이라고 답을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져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음. 일단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확운위 구성원과 얘기를 해봐야 할 필요성을 느껴 해당 안건을 상정하게 됨. 물론 주변에서 지난 21대 총장 선거처럼 보이콧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취지를 이해는 하지만 4년에 한 번씩 있는 부산대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산대학교 총장 선거에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비추는 건 어떤 의미와 이미지로 남을지 판단이 확정되지 않기에 의견을 구하고자 함.

경영(부) : 유권자 대비 투표율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의장 : 만약 우리가 10명의 선거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거 반영 비율이 10%라고 한다면, 그 중 7명이 투표를 했을 시 0.7%가 반영됨. 그런데 만약 모수가 커지게 된다면 100명의 선거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거 반영 비율이 10%라고 했을 때, 그 중 7명이 투표를 한다면 0.07%가 반영되어 학생 의견이 큰 영향력을 차지하지 못함.

경영(부) : 그럼 지금까지 얘기된 것은 경암체육관과 관련해서 무엇인지?

의장 :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인원은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하여 참여할 수 있고,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지 않은 인원은 경암체육관에 기표소를 설치하여 해당 장소에서 오프라인 투표, 즉 현장 투표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임.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유해드린 캘린더를 참고하시면 알 수 있겠지만 2월 6일 1차 투표가 정오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이 되고 이후 13시에 1차 개표를 함. 1차 개표를 한 후 14시 30분부터 2차 투표를 약 1시간 가량 진행한 후 2차 개표를 하는 결선 투표제 방식을 도입하여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하고 과반을 넘긴 후보자가 발생하면 해당 후보자를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그리고 차순위 후보자를 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하여 교육부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그리고 교육부는 1순위 또는 2순위 총장임용후보자 중 한 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게 됨.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관련하여 의견을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자(정) : 오프라인 투표를 하는 학생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게 될 텐데 해당 선거인 명부에 작성하는 인원만 모수에 추가할 경우 분모와 분자가 같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런 방법은 어떠한지?

의장 : 행정적으로 해당 방안을 추진할 수 없는 이유가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전에 확정되어야 함. 즉 어떤 이가 투표권을 가졌는지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 명부가 당일에는 수정이 안 됨. 총학생회나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의 경우도 선거인 명부 확정일이 있고 어떤 이가 재학 중인지, 또는 휴학 중인지 확인하여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당일에는 선거인 명부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방안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드림.

사회(정) : 현재 논의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 의문이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방안으로 진행되었을 때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움. 교원과 직원 그리고 학생으로 이루어진 부산대학교 내에서 학생의 지분이 3분의 1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단지 주어진 현실인 학생 반영 비율 10% 내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학생 반영 비율이 10%인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보이콧을 하든, 의견을 적극 개진하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이콧을 한다면 두 번의 총장 선거에 연속하여 보이콧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나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이고 이것이 결국 다른 직능단체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함.

의장 : 다른 시야에서 접근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작년 확운위에서 상당한 심의를 거쳤음. 당시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총장 선거에 학생 반영 비율이 10%가 됐다는 가정하에 당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학생 반영 비율이 높았음. 왜냐하면 다른 대학교는 교원이 전체의 80~85% 상당의 영향을 행사하고 나머지 20~15% 비율을 직원과 학생의 반영 비율로 정했기 때문임. 그리고 또 학생 반영 비율이 10%이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직능단체별 반영 비율을 합치면 전체가 백분율에 따라 100%가 되는 것이 아니라 130%가 되어 실질적 학생 반영 비율은 7.69%가량 됨. 물론 지난 총장 선거에 비해 반영 비율이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은 맞지만 굉장히 적은 수치임은 자명함.

경영(부) : 그렇다면 투표 반영 비율에 있어 차등의 근거는 무엇인지?

의장 : 본인의 사건인데 구조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됨. 일례로 대학평의원회에 학생 위원이 참석하긴 하지만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개회가 되지 않거나 의결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님. 민주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다수결의 원칙이 작용하는 이상 평균적으로 정원의 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한 인원의 반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되게 되어 있음. 그렇기에 대부분의 회의에서 의사 결정권을 가진 직능단체가 되려면 4분의 1이라는 수가 넘어야 하는데 학생이라는 직능단체가 해당 위치에 있는 경우는 없음. 이런 것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일 수도 있음. 그래서 일단 말씀해 주신 그러한 큰 틀에서의 논의는 이미 작년에 논의하여 서명까지 마쳐 4년 뒤 총장 선거 때 총학생회장께서 한 번 더 고심하여 대응해야 실효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에 우리가 마주친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의견을 더 받고자 함.

경영(부) : 그렇다면 기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학생들에게만 투표권을 준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의장 : 그 근거라고 한다면 2023년 10월 31일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학생 선거인 명부 등록 방식을 규정하여 명시된 선거권자 전체 대상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행하고 동의자를 선거인 명부 등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 그리고 이 내용을 인수인계 받아서 2024년 1월 9일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시행 방식에 대한 방식을 전파한 후 단과대학별 별도 안내 시행 및 홍보 방안 협의 그리고 1월 13일에 총학생회 차원 학생 대상 선거인 명부 등록 절차 및 총장 선거 참여 안내 홍보물 게시 그리고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총학생회 차원 학생 대상 선거인 명부 등록 독려를 위한 릴레이 태그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공문을 통해 근거를 남겼음. 또 학생과 공문 962번을 확인하면 제22대 부산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위한 학생 선거인 등록 협조 요청 공문을 작성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할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선관위에서 선거인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하였음.

경영(부) : 과정적인 근거보다도 그렇게 의결이 된 그 근거 자체에 관하여 알고 싶음.

의장 : 그것과 관련해서 확운위 의결임.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선거인단을 꾸리겠다는 것에 관한 최종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음.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장 선거에서도 100인의 선거인단을 꾸리는 것과 관련하여 확운위의 의결을 거쳤었음.

경영(부) : 만약 당시에 그런 의결이 된 배경을 알 수 있다면 그 근거를 통해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데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없어 난감함.

의장 : 일단 최초 근거 자료는 작년 확운위 의결 회의록이 될 수는 있음. 특히 작년에 학생 전체를 선거인으로 할 것인지, 추첨을 통해 할 것인지, 회장의 추천을 통해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논의하였고 그 결과 기존 방식으로 의결이 됐었음.

생과(부) : 만약 경암체육관에서 오프라인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2월 6일이 방학 기간인데 굳이 경암까지 올라가서 투표를 할까하는 의문이 들어 다른 대체 장소는 없는지 궁금함. 예를 들어 시월광장 넉넉한 터와 같은 장소가 어떤지?

의장 :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투표와 개표를 하기 위해서 실내 체육관과 같은 장소가 필요함. 그런데 우리 학교는 구조상 고도가 낮은 곳에 실내 체육관과 같은 장소가 없음. 따라서 불가피하게 경암체육관에서 진행을 하게 된 것임.

생자(정) : 선거인 명부를 사전에 수합받고 그것을 수정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당일 투표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게 되므로 수정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의장 : 관련하여 확인해 봤는데 우리학교 학적에 있는 개인정보 전체를 일단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관하여 그것을 토대로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겠다고 하였음.

경영(정) : 개인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본인은 학생 전체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되는 방안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학생 의견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 학생 전체가 모수로 설정될 경우 한 표의 가치가 작아지는 것에 유감스럽지만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 중 하나가 참정권인데 그런 참정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기존 방식이 우리나라의 최고법에 위촉되므로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경영(부) : 만약 전체 학생이 투표 가능할 수 있도록 모수를 변경한다면 온라인 투표와 오프라인 투표라는 투표 방식에서의 차이도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함. 기존에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학생만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게 한다면 이것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투표 방식 자체도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함.

사회(부) : 헌법에서의 참정권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일단 본인은 만약 모수가 학생 전체가 된다면 사표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함. 왜냐하면 지금 선거인 명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은 결과가 3,000명쯤 되는데 만약 학생 한 명당 투표 가치가 0.00067%로 반영되게 된다면 정치 효능감이 떨어져 투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헌법은 해석하기 나름인 점을 고려하여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수를 학생 전체로 늘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함.

자연(부) :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신 의견에 동의하는데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에 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지만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선거 당일 경암체육관까지 가서 굳이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또한 현재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한 3,704명이라는 인원도 실제로 투표할지에 관해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모수를 학생 전체로 할 경우 20,000여 표는 사표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인문(정) : 경영대학 학생회장님 말씀을 듣고 헌법과 연관지어 생각을 했을 때 학생 간 표의 등가성은 성립하는데 왜 굳이 반영 비율을 달리하여 선거를 진행하는지 의문이고 그것과 관련해선 헌법의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서 또 선거인과 관련해선 헌법에 저촉되니 수정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생각함. 또 이와 관련하여 이미 다수가 찬성하여 의결을 한 부분에 관하여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결 내용을 수정하여 재의결하는 것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함.

경영(부) : 물론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투표 반영 비율에 차등을 둔 것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은 학생 전체에게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온라인 투표와 오프라인 투표를 나누는 방식 자체에 헌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함.

공과(부) :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번에 선거인 명부 등록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했는데 만약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그것과 관련해선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인지?

의장 : 관련하여 질문을 했었는데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이 돌아온 것은 총장 선거를 학사 업무로 보는 관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음. 물론 이러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저 역시 충분히 이해하지만, 만약 선거가 끝난 후에 적지 않은 인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연(정) : 작년에 총장 선거에서 학생 반영 비율을 높이기 위해 묵언 시위, 중앙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입장문까지 게시하며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여 학생 반영 비율이 늘어난 것은 가시적 성과라고 생각함. 그렇지만 실질적 학생 1표당 반영 비율이 0.000671%라는 것은 총장 선거 후보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기에 학생을 위한 노력을 할까라는 의문이 듭.

의장 : 만약 해당 내용을 더 빨리 알았다면 많은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했을 텐데, 총장 선거까지 2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 상당히 유감임.

자연(정) : 물론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 사안을 그냥 넘어갈 경우에 학생에 대한 이미지가 신임 총장께 어떻게 비칠 것인지 생각해 주셨으면 함.

의장 : 그럼 관련하여 입장문을 게시하는 것에 관해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사안이 급하다 보니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음.

IV. 기타 안건

의장 : 기타 안건을 발제할 위원이 있으신지? 기타 안건은 없으므로 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하겠음.

V. 건의 안건

의장 : 건의 안건을 발제할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사회(정) : 일전에 말씀해 주신 학생회 역량 강화 동계 워크숍과 관련하여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 안건을 발제하고자 함. 사회과학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 14분은 지금까지 회의를 통틀어 결원 인원이 2명 이상이 된 전례가 없음. 그런데 이번 학생회 역량 강화 동계 워크숍과 관련해서 모든 단운위 위원께서 불참하겠다고 의견을 주셨음. 그 이유는 해당 워크숍의 목적이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과 예·결산안 작성 방법 및 업무 시스템 교육 그리고 대동제 기획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자는 것인데, 7개 단위가 있는 사회과학대학 입장에선 5명만 가게 된다면 2개 학과의 대표자가 갈 수 없게 됨. 그런데 이 2개 학과의 대표자가 예·결산을 작성하지 않거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 것도 아님. 따라서 각 학과 대표자 한 명이라도 갈 수 있게 해줄 수 없는지 방안을 재검토 해주셨으면 함.

의장 : 본인 역시 가급적 많은 인원을 모시고 학생회 역량 강화 동계 워크숍을 가고 싶으나 부산대학교 학과(부)의 수가 100개가 넘어가고 한 분씩만 모신다고 하더라도 100명이 넘는 수일 테고, 확운위 구성원과 행사 당일 스태프까지 포함하면 약 170여 명이 됨. 현재 계획상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은 130명인데 그렇게 되면 40~50명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막대함. 이미 현재 130명 기준으로 설정한 재원도 상한에 근접하기에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 양해주시기 바람.

사범(부) : 사범대학의 경우 학과가 17개 학과인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12개 학과가 소외되게 됨. 그런데 본인은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드리고 싶은 의견은 현재 사범대학에서 시행 중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과 학생회 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각 학과를 대상으로 예·결산안 작성 방법에 관해 교육하고 그 외의 것들도 교육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예·결산안이나 그 외의 것과 관련하여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의장 : 해당 학생회 역량 강화 동계 워크숍은 확운위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계된 점과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가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신지? 추가 건의 사항이 없으므로 제5차 확운위 정례 회의를 폐회하겠음.

구성원

※ 의장(총학생회장), 부의장(부총학생회장), 운영위원(단위별 회장단)

주재 :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		이창준	○	부총학생회장		서승범	
운영위원	간호대학 학생회장	송경민	○	운영위원	간호대학 부학생회장	예채영	
	경영대학 학생회장	김도연	○		경영대학 부학생회장	장서윤	○
	경제통상대학 학생회장	김상훈	○		경제통상대학 부학생회장	김한영	X
	공과대학 학생회장	박기돈	○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권민수	○
	나노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이승록	○		나노과학기술대학 부학생회장	정유철	X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	김상원	○		동아리연합회 부학생회장	이서현	○
	사범대학 학생회장	배어진술	○		사범대학 부학생회장	송주윤	○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이석영	○		사회과학대학 부학생회장	김다혜	○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생회장	조석훈	○		생명자원과학대학 부학생회장	안장현	X
	생활과학대학 학생회장	이채미	○		생활과학대학 부학생회장	장현희	○
	약학대학 학생회장	김담희	X		약학대학 부학생회장	한승윤	○
	예술대학 학생회장	최서윤	○		예술대학 부학생회장	이지현	X
	의과대학 학생회장	강찬우	X		의과대학 부학생회장	정현지	X
	인문대학 학생회장	김준서	○		인문대학 부학생회장	박금서	○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이지원	○		자연과학대학 부학생회장	김원석	○
	정보의생명공학대학(비)	강규석	X		정보의생명공학대학(비)	김효정	X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오준엽	○		치의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오가은	X
	한의학전문대학원(비)	최태영	X		한의학전문대학원(비)	정덕윤	X
대 리 출 석							
비 고 (△)							
간 사	총학생회 사무총괄국장(준) 전영욱						

참관인
